어려운 문화재 설명, 쉽게 바뀐다

문화재청, 2500여 개 문화재 안내판 개선 추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석탑은 불사리 신앙을 바탕으로 발생한 불교 특유 조형물로서 대웅전 앞마당의 자오선상에 일탑 또는 쌍탑으로 배치된다." - 범어사 삼층석탑(보물 제250호) 안내판 중 일부

'불사리', '자오선상', '일탑 · 쌍탑' 등 전문용어로 채워졌던 문화재 안내판이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변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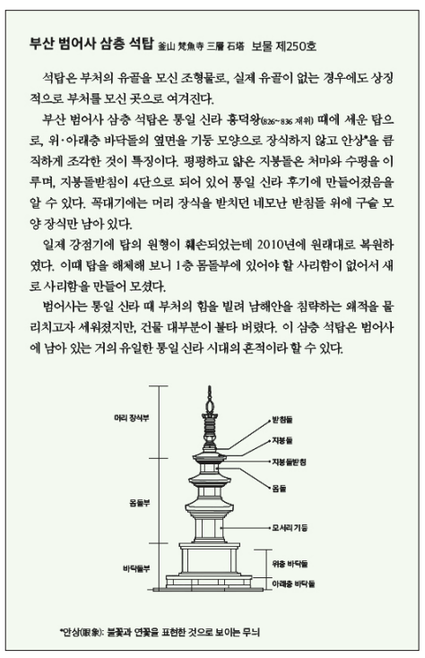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관람객이 문화재 안내판을 통해 문화재에 담긴 역사와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재 안내판 개선사업' 을 추진한다"고 3월 13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차를 맞는 '문화재 안내판 개선사업' 은 관람객이 많이 찾는 고궁과 조선왕릉, 고도(古都)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부여, 공주, 익산 지역에 있는 주요 문화재 안내판에 대해 1차적으로 이뤄졌다.

올해 개선사업은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선정한 전국 1,392개 문화재에 설치된 안내판 약 2,500여 개를 대상으로 하며, 국비 약 56억 원을 포함한 총 103억 원이 투입된다.

전문용어 풀고 이야기 담아
1300여 곳 문화재 안내 개선
국비 등 103억원 예산 투입
시민자문단 · 모니터링 실시도

지난해 실시한 대국민 참여 행사 등을 통해 잘못된 안내판으로 접수된 의견은 총 355건이었으며, 이 중 어려운 단어나 문장이 들어간 안내판과 내용 · 번역 오류, 낡거나 훼손돼 잘 보이는 않는 안내판 등 실제로 개선이 필요한 166건은 올해 안내판 개선사업에 포함됐다.


부산 범어사 삼층 석탑 金山 梵魚寺 三層 石塔 보물 제250호

석탑은 부처의 유골을 모신 조형물로, 실제 유골이 없는 경우에도 상징적으로 부처를 모신 곳으로 여겨진다.

부산 범어사 삼층 석탑은 통일 신라 흥덕왕(826~836 재위) 때에 세운 탑으로, 위·아래층 바닥돌의 옆면을 기둥 모양으로 장식하지 않고 안상*을 큼직하게 조각한 것이 특징이다. 평평하고 얇은 지붕돌은 처마와 수평을 이루며, 지붕돌받침이 4단으로 되어 있어 통일 신라 후기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꼭대기에는 머리 장식을 받치던 네모난 받침돌 위에 구슬 모양 장식만 남아 있다.

일제 강점기에 탑의 원형이 훼손되었는데 2010년에 원래대로 복원하였다. 이때 탑을 해체해 보니 1층 몸돌부에 있어야 할 사리함이 없어서 새로 사리함을 만들어 모셨다.

범어사는 통일 신라 때 부처의 힘을 빌려 남해안을 침략하는 왜적을 물리치고자 세워졌지만, 건물 대부분이 불타 버렸다. 이 삼층 석탑은 범어사에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통일 신라 시대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안상(眼象): 불꽃과 연꽃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무늬

문화재청이 제시한 문화재 안내판 사례. 어려운 전문용어를 줄이고, 해당 문화재에 대한 이야기도 삽입했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실시한 대국민 참여 행사 등을 통해 잘 못된 안내판으로 접수된 의견은 총 355건이었으며, 이 중 어려운 단어나 문장이 들어간 안내판과 내용 · 번역 오류, 낡거나 훼손돼 잘 보이는 않는 안내판 등 실제로 개선이 필요한 166건은 올해 안내판 개선사업에 포함됐다.

문화재청이 개선코자 하는 문화재 안내판 개선 방향은 국민들이 알고 싶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해당 문화재의 역사를 이야기로 반영할 것도 권고한다.

실제 문화재청이 사례로 제시한 범어사 삼층석탑의 경우 어려운 용어를 최대한 풀어서 설명했으며, 일제강점기 당시 원형 훼손 · 범어사 창건 배경 등 전반적 역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놓았다. 또한 석탑의 각 부위 명칭들을 도상을 통해 설명해 놓은 것도 눈길을 끈다.

현재 문화재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례로 보는 문화재 안내문안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 1월 배포했다. 또한, 문화재를 찾는 외국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어 문안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표기 용례집〉 등 지침도 제 · 개정해 추가로 배포할 계획이다.

오는 3월 22일에는 지자체 담당자와 안내문안 집필진을 대상으로 '문화재 안내판 개선 워크숍' 을 개최해 국 · 영문 안내문 작성방안, 안내판 디자인과 설치 등에 대한 토론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공유한다.

문화재청은 "각 지자체가 문화재의 성격과 지역적 특색 등을 반영한 문화재 안내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교육과 조언, 자문 등 다각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올해 정비되는 2,500여 안내판 이외에도 문안, 배치, 규모, 관리실태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문화재 안내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구축하고 국민들에게 제공하며 문화재청 홈페이지 오류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항상 제보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올해는 국민이 안내문 작성과 검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민자문단' 도 신설 · 운영된다. 지자체별로 구성되는 시민자문단에는 안내판에 관심있는 지역민이라면 누구나 안내문의 작성과 검토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사진 왼쪽)이 3월 12일 오후 예산 수덕사를 방문해 대웅전(국보 제49호) 뒷편에 산불피해를 대비해 설치된 수막시설과 방수총 등 사찰의 소방설비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문화재청, 수덕사 안전 종합점검 실시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3월 12일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정묵)에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수덕사 주지 정묵 스님을 비롯해 정재숙 문화재청장, 황선봉 예산군수와 기관 · 자자체 실무자들이 참여했다.

점검단은 국보 제49호 대웅전의 주변시설물 안전 상태와 옥외소화전, 수막설비, 방수총, 재난상황 통보 관제 시스템 등의 가동상태를 점검했다. 또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에서는 3D스캔과 측량기, 드릴저항측정기, 초음파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점검방법을 설명했다.

이어 무이당 소조여래좌상을 둘러보고 소조여래좌상 안에서 수습된 1240년 최이가 간행한 〈묘법연화경〉과 대각국사 의천이 간행한 〈대방광불화엄경소〉, 재조대장경 〈사아함모초해〉 절첩본 등을 전시하고 있는 성보박물관의 전시유물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은 한 번 쓰러지면 다시 되찾을 수 없기 때문에 보존과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문화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문화재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불교 사회화' 연구 · 천착의 궤적

정년퇴임한 박경준 교수
28편 논문 모아 총서 펴내
'산 불교' 고민했던 연구들
"적극적 사회의식 필요" 주문



최근 정년을 맞는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는 〈불교사회경제사상〉 등의 저서를 통해 응용불교학 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학자다.

그가 발표한 여러 편의 논문에는 당시 시대 현안에 대한 불교적 고민과 불교의 사회참여 등 '불교 사회화' 에 대한 고민들이 담겼다. 박경준 교수의 이 같은 학문적 궤적을 만나볼 수 있는 총서 〈불교학의 사회화 이론과 실제〉가 발간됐다.

이 책은 저자가 그동안 발표한 주요 논문들을 재정리한 것으로 '불교의 사회화 · 생활화' 를 주제로 한 28편의 논문이 수록됐다.

여기에 수록된 논문들은 '불교의 사회화' 라는 큰 주제의 이론적 토대를 성찰한 것도 있고, 그 당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실천적 방향을 모색한 것도 상당수다. 물론 전자의 논문들은 시기에 구애되지 않는 본질적 성찰이지만, 후자의 논문들에 드러난 문제의식도 현실 사회를 바라보는 데 있어 여전히 유의미하다.

'불교 업설에서의 동기론과 결과론' 에서는 불교 업설은 행위의 의도를 중시하는 동기론이지만 결과론적인 측면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박경준 교수는 관념론으로 흐르기 쉬운 동기론적 사고는 특히 사회적 실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반면, 결과론적 사고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적 실천을 촉발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착한 동기만이 선이 아니라 좋은 결과를 낳은 행위도 선이라는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불교의 사회적 실천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한국불교의 지상과제인 전법 · 포교를 학문 · 이론적으로 정립하기위한 고민들도 있다. '전법교화학 정립의 방향과 과제' 에서는 전법교화학의 필요성과 이론 체계를 분류했으며, 선결과제로는 〈통일불교성전〉의 발간과 활용을 주문했다.

'불교적 가족개념과 가족포교' 에서는 가족포교에 대한 중요성과 포교 프로그램 등을 제언하기도 했다.


박경준 교수

이밖에도 환경 · 노동 · 현실참여 · 문화비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교를 접목해 연구 · 천착한 논문들은 주의 깊게 읽어볼 만 하다.

저자가 다방면에 걸쳐 연구 주제를 펼쳐놓은 것은 '산 불교' 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그는 서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경전 속에 갇혀 있는 종교가 죽은 종교라면, 동시대와 함께 호흡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는 종교가 산 종교이다. 그동안 한국불교는 빠른 시대변화가 몰고 온 수많은 사회적 난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역사를 능동적으로 향도해 오지도 못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불교인의 투철하고 적극적인 사회의식이 필요하다. 또한 전통적인 불교교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해석이 필요하다."

저자는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이지만 깨달음 이상주의, 깨달음 신비주의에 매몰되는 것을 경계한다. 즉 그가 이해하는 불교는 '깨달음을 위한 삶' 이 아니라 '삶을 위한 깨달음' 을 가르치는 종교인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그 가장 뛰어난 모범을 고타마 붓다에게서 찾는다. 붓다는 깨달음을 이룬 후 열반에 들지 않고, 중생의 미혹을 깨뜨리고 중생의 고통을 보듬기 위해 세간 속으로 뛰어들었으니, 그는 깨달음이 삶의 완성이 아니라 참다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저자는 이런 문제의식과 신념을 바탕으로 현학(衒學)과 사변(思辨)으로서의 불교학을 지양하며 불교를 주체적 · 역동적 '삶의 예술' 로 정의한다.

저자에게 '불교의 사회화' 와 '불교의 생활화' 는 학문적 화두다. 이 책은 그 화두를 참구한 학문적 결정체다.

신성민 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1등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